

칠레 국가발전 지수 최신 현황 (2022)

작성자주 칠레 대사관 작성일2022-03-11

최근 국가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국제지표에서 칠레가 중남미 선두권에 위치하였으며, 관련 주요 국제지표 동향(2020-2021년)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**(1인당 국내총생산)** IMF 발간「World Economic Outlook(WEO)」에 따르면 2021년 말 칠레 1인당 GDP(구매력기준)는 USD26,513로 남미에서 1위, 중남미에서 2위를 차지함(파나마 1위, USD30,889).
 - 상기 관련, 당초 2022년에 구매력(PPP) 기준 1인당 GDP가 USD30,00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나, 2019년 10월 사회소요사태 및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로 인해 2025년에 USD30,000를 넘을 것으로 예측
- **(대외경제개방지수)** 미국 헤리티지재단(The Heritage Foundation)이 금년 1월 발표한 경제자유지수(2022)에 의하면 칠레는 중남미에서 1위(74.4점), 조사 대상 177개 국 중 30위를 기록함(한국 19위, 74.6점).
- **(부패지수)** 국제투명성기구(ITI)가 2022년 1월 발표한「국가별부패인식지수(CPI)」 따르면 칠레는 67점으로 중남미에서 2번째로 투명한 국가에 위치함(우루과이 1위, 73점).
 - 이와 관련, 칠레는 △미주지역 기준 3위(캐나다 1위, 우루과이 2위) △OECD개발기구 회원국 중 20위, △세계 기준 27위 차지
- **(민주주의지수)** 「Economist Intelligence Unit(EIU)」이 금년 2월 발표한「2021년 글로벌 민주주의지수」에 따르면 칠레는 중남미에서 우루과이, 코스타리카에 이어 3위를 차지함.
 - 이와 관련, 중남미 역내 민주주의지수는 6년 연속 퇴행하였으며, 칠레의 경우 2019년 팬데믹 이전「완전한 민주국가(Full Democracy)」등급*에서 결함(Flawed)로 퇴행
*등급 4단계: 완전-> 결함-> 혼합-> 권위주의
 - 본 지수는 △선거과정 및 다원주의, △정부기능, △정치참여 등 총 5개 요소로 평가되며, 칠레 민주주의 지수 퇴행 주요 원인으로 △낮은 대선 투표율, △정부신뢰도 하락, △정치 양극화 심화 등을 설명

- **(인간개발지수)** 국제연합개발계획(UNDP)이 발표한‘2021 인간개발지수’에 의하면 칠레는 중남미 1위, 조사 대상 189국 중 43위를 기록함.
 - **(제도수준지표)** 라틴아메리카자유주의네트워크(RELIAL)가 발표한 2021년 국가 제도수준 평가 지표(ICI)에 따르면 칠레는 중남미에서 멕시코에 이어 2위, 세계 25위를 차지함.
 - 본 지표는 상기 연구기관이 전 세계 216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주요 8개 기관 지표를 종합해 측정한 상대적 수치로,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국민 권리 보호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척도
 - **(기타지수)** 그 외 국가발전 수준 척도 지표로서 행복지수는 중남미에서 6위, 세계 39위(유엔세계행복보고서(WHR), 2020)를 차지함.
-